

#차별금지법있느니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 차별금지법이 공감한 당신에게

기독교인을 위한 차별금지법 안내서



# 차별금지법이 궁금한 당신에게

기독교인을 위한 차별금지법 안내서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인간의 존엄과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차별의 예방과 시정에 관한 내용을 담은 법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다양한 단체들이 모여 행동하는 연대체입니다.

2025년 11월 현재 166개 인권시민사회단체와 15개의 지역 네트워크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는 반차별 평등 지향의 기독교인 네트워크입니다.

다양한 기독교 교파(개신교, 성공회, 천주교)가 함께 모여 현안에 대응하고, 다양한 강의, 행사, 예배를 진행합니다.

2024년부터 매년 하반기에 모든 소수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함께 살아갈 세상과 교회를 상상하고 실천하는 장인 '평등의 날' 행사를 엽니다.



# 목차

들어가며: 차별금지법, 변화의 출발점	6
----------------------	---

차별금지법과 사람들	11
------------	----

차별금지법 제정을 찬성하는 안수집사, 윤형철	14
교회 다니는 엘라이 기독교인, 최소영	16
주님의 자녀 퀴어 기독교인, 김미지	18
교회에서 사랑을 배운 인권활동가, 박정민	20
교회를 사랑하는 권사, 양운영	22
교회와 세상 사이 어딘가의 목회자, 나운석	24

차별금지법과 질문들	27
------------	----

Q.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목사님이 ‘동성애’ 이야기만 꺼내도 처벌되나요?	29
Q.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발언도 ‘표현의 자유’ 아닌가요?	31
Q.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확산하는 법 아닌가요?	34
Q.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때문에 HIV/AIDS가 늘어난다는데 사실인가요?	37
Q.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남자도 여자 화장실 이용하는 걸 막을 수 없다는데요?	40
Q.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범죄자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43

<b>차별금지법의 약속</b>	47
<b>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그리고 교회</b>	55
환대의 신학: 배제와 혐오 대신 환대와 사랑을	56
평등의 연대기: 육우당부터 초록나무까지, 20가지 장면들	62
<b>차별금지법과 평등세상으로 가는 길</b>	77
엘라이 기독교인을 위한 행동 십계명	78
더 깊은 대화를 위한 질문	82
길을 잃지 않기 위한 책과 자료	84
동료를 만날 수 있는 신앙 공동체	88
<b>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b>	99
<b>환대를 위한 기도와 전례</b>	107

## 들어가며: 차별금지법, 변화의 출발점

한국 사회에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노력이 시작된 지 어느새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속에서 차별금지법과 기독교는 주로 대척점에서 있었습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기독교 앞에는 으레 ‘보수’가 따라붙었고, ‘혐오선동 세력’이라는 수식어도 더 이상 낯설지 않으니깐요. 혐오로 세를 불리고 ‘극우’의 중심에 선 기독교에 더는 희망이 없다는 탄식도 끊이지 않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가장 격렬하게 반대하는 집단이 기독교라는 사실은 많은 이에게 슬픔과 좌절을 안겨주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살아가는 성소수자, 마치 기독교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차별금지법 결사 반대’를 선포하는 목회자들을 우려하며 바라보는 또 다른 목회자들, ‘가장 낮은 자들의 하나님’을 따르고 실천하기보다 힘을 자랑하는 교회를 보며 신앙심을 잃지 않기 위해 애쓰는 기독교인들… 지난 20여 년 동안 만난 기독교인들을 떠올리며, 우리는 같은 질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

##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공공성을 상실한 교회, 정치화된 신앙, 권력이 된 종교의 문제를 비판하는 건 필요한 일이지만, 거기에 멈춰설 수는 없었습니다. ‘하루이틀 된 일도 아닌데’ 하며 자조하는 것에 그칠 수도 없었습니다. 차별과 혐오가 주류 교회의 언어로 여겨지는 상황 속에서도 교회로부터 상처받은 이들을 환대하며 평등을 일구어 온 교회 공동체가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 앞에서 기독교가 다른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더 넓게 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분투하는 목회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이들이 말하기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 없이 모두를 향하기에, 차별금지법은 기독교인에게도 참복음을 실천하는 기반이자 ‘우리 모두의 법’이라고 꾸준히 외쳐온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쌓아온 용기에 기대어 차별금지법의 의미 또한 더 확장될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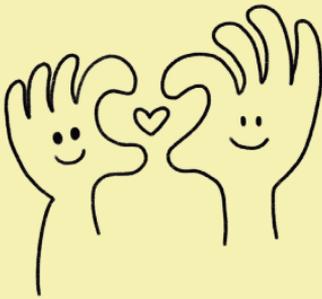
그래서 우리는 희망의 몸집을 불려가고 싶다는 바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이 우리만의 것은 아니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인식은 이미 몇 해 전부터 꾸준히 변화해 왔으니까요. 차별금지법 제정을 앞당길 수 있는 변화를 기독교로부터, 기독교인들과 함께 만들어간다면 우리는 어떤 미래를 함께 마주하게 될까요? <차별금지법이 궁금한 당신에게 - 기독교인을 위한 차별금지법 안내서>는 그 미래에 대한 기대에서 시작된 공동의 작업입니다.

먼저 차별금지법과 기독교 사이의 거리를 좁히고 더 많은 접점을 발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안내서를 만들었습니다. 안내서는 민주주의와 성소수자 인권이 진전되는 과정에서 기독교가 써내려온 역사를 현재와 잇습니다. 존재 자체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세상과 차별금지법으로 만들고 싶은 모두가 존엄한 세상을 포개어 봅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오해와 이해 사이에서 길벗이 되어줄 지도를 그립니다. 때로 혼란스럽지만 자신이 품게 된 질문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분들, 기독교가 환대와 공존의 신앙이 되기를 바라며 평등으로 한 발 더 내딛고 싶은 분들과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평등의 원칙이 가로막혀 있는 한복판에서 변화의 앞을 틔우는 일, 어렵지는 몰라도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의 동료가 되어가는 여정 속에서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 또한 성큼 다가올 것을 믿습니다.

2025년 11월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

‘존재 자체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저 구호가 아니듯  
우리의 사랑도 확장되면 좋겠습니다.

20대 그리스도인

# 차별금지법과 사람들

언뜻 보면 한국 교회 전체가 차별금지법에 반대하는 것 같지만, 교회 안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생각이 공존합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 혐오와 사랑. 이 단어들이 교회 안에서 날카롭게 대립하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신앙을 재구성하는 계기가 된 단어들이기도 합니다. 이 단어들이 오해와 왜곡 없이 이해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거대 담론과 날카로운 대립 사이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여보면 어떨까요?

여기 등장하는 6명의 이야기는 어떤 주장을 밀어붙이기 위한 논리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과 믿음 속에서 어떻게 '차별금지법'이라는 단어를 마주하게 되었는지 모두에게 말을 거는 이야기입니다. '낯선' 존재가 아니라 너무도 비슷한 믿음을 품고, 같은 예배당에 앉아, 같은 주님을 바라보는 이웃들 혹은 나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

## 차별금지법을 반대할 이유가 있을까요?

윤형철 50대 남성, 안수집사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를 다닌 이후 안수집사가 되기까지 성실하게 교회를 다닌 일명 ‘교회맨’ 윤형철. 교회 안에서 신앙의 시간을 착실히 쌓아온 그는 자신을 ‘기성세대’라 표현한다. 그러나 ‘고인물’이 되지 않으려 노력하는 편이다. 교회 바깥 기독교 단체의 강의에 참여하고, 인문학 책 모임에도 나간다. 그 과정에서 그는 처음으로, 교회 바깥의 관점으로 교회를 보는 눈을 얻었다고 한다.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지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교회 바깥에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교회 안을 보기 시작하니까… 부끄러운 부분이 보이더라고요.”

차별금지법 이야기를 꺼내면 교회 사람들은 곧장 ‘동성애 반대’로 달아오른다. 그도 동성애에 대해선 아직 ‘서걱거림’이 있다고 고백한다. 동성애를 죄라고 명시한 성명 구절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할지 아직 잘 모르겠다. 하지만 차별금지법에는 비교적 단호한 입장이다. “그 법은 동성애만 다루는 게 아니잖아요. 장애인, 여성, 이주민, 나이 드신 분들… 저와 같은 시민을 위한 법이잖아요. 우리나라는 기독교 국가도 아닌데 왜 반대하는지…”

교회 안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서명을 권하는 분위기다. 목사님

이 주일예배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이후, 교인들 사이에선 이견을 말하기 어려워졌다. “서명 안 하면 괜히 불편한 눈초리를 받아요. 그런데 저는 서명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반대하는지 제대로 알고 서명하자고 말하고 싶어요.” 앞장서서 주장하거나 논쟁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형철은 교회 안에서 솔직하게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더 공부하며 고민한다면 혐오가 아니라 사랑을 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 사람을 알게 되면 함부로 말하기 어려워요. 귀어라는 말 대신, ‘이웃’이라는 존재가 들어왔기 때문이죠.

최소영 30대 여성, 엘라이 기독교인

최소영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그러나 신앙을 떠난 건 아니다. 어릴 적부터 교회가 삶의 중심이었다. 소영은 든든한 ‘교회 언니’로서 성실하고 왕성하게 활동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불편한 곳이 되었다. 가부장적인 질서, 위계적인 운영, 사회 문제에 침묵하거나 무지한 모습들 속에서 부대꼈다. 교회는 더 이상 자랑스러운 공동체가 아니었다. 결정적인 계기는 2014년 세월호 참사와 신촌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였다. 친구를 만나기 위해 신촌에 간 소영은 난생처음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했다. “축제를 즐기며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는 기독교인과 그들을 향해 저주 기도를 하는 기독교인을 한꺼번에 만났어요. 혼란스러웠죠. 게다가 동성애를 반대하기 위해 세월호 참사를 이용하는 걸 보고선 수치심과 절망감이 몰려왔어요.” 내가 그간 제대로 배우고 올바르게 믿고 있었던 걸까? 그날 소영은 귀가해 동성애를 반대하는 성경 구절을 찾아서 다시 읽었다고 한다. 의심하기 위해, 제대로 믿기 위해. 그 이후 거리에서, 투쟁 현장에서, 인권을 위해 싸우는 자리에서 새로운 신앙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페미니즘과 퀴어에 관해 공부하는 일도 그 모색의 일환이다. 처음엔 멀고 낯설었다. 교회에서 배운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무의식에 깊

이 남아 있었다. “그림자가 컸죠. 혹시 교회가 옳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건 아닐지 의심도 했어요.” 하지만 의심은 질문을 낳았고, 질문은 배움으로 이어졌다. 책을 읽고, 퀴어 당사자를 만나고 직접 대화하며 익숙한 혐오는 조금씩 부서졌다. “사람을 알게 되면 함부로 말하기 어려워요. 퀴어라는 말 대신 ‘누구’라는 존재가 들어오니까요.”

소영은 교회를 떠났지만, 누구보다 하나님은 사랑이고, 교회는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고 믿는 신앙인이다.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숨 쉴 수 있는 교회, 언젠가 그런 공동체를 다시 만나고 싶어요.”



## 나는 여기 분명히 있는데 왜 없어져야 하는 사람이 된 거죠?

김미지 20대 논바이너리, 퀴어 기독교인

“나는 분명 여기 있는데… 왜 없어져야 할 사람처럼 대할까요?”

김미지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논바이너리(Non-binary)’라고 말한다. 자신을 남성 또는 여성으로 규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처음 인식한 건 중학생 때였다. 하지만 비밀로 했다. “가족도, 친구도, 교회도 안전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하면 다 잃을 거 같았어요. 교회 다니는 걸 좋아해요.” 미지는 여전히 주일이면 교회에 간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 소그룹 모임은 정신 건강이 좋을 때만 가끔 간다. 예배 중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 오직 두 가지 성별을 만드셨다’고 규정하는 설교가 나올 때마다, 미지는 숨을 죽인다. 자신이 성소수자인 걸 들키지 않으려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애쓴다. 그런 날이면 집에 돌아와 긴 낮잠을 잔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아픈 걸 넘어서… 몸까지 아파요. 나 자신이 공격받았는데 어떻게 멀쩡하겠어요.”

그런데도, 그녀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 퀴어 친구들은 왜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까지 교회에 남느냐고 묻지만, 미지에게 교회는 주님과 자신을 연결하는 끈과 같은 곳이다. “교회 가면 아프긴 한데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으니깐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데 당신들이

뭔데? 이런 마음도 있어요. 차별과 혐오에 지고 싶지 않은 마음이랄까요.” 어느 날은 목사님에게 커밍아웃하는 상상을 했다고 한다. “그분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를 하면서 성소수자를 혐오하는 설교를 하던 그 날, 저 앞에서 세 번째 줄에서 그 설교 들었거든요. 나 논바이너리인데 나도 주님의 자녀예요. 나 여기 있어요. 그런데 왜 목사님이 저를 부정 하죠? 라고 말하는 걸 상상했죠.”

미지는 ‘퀴어’라는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고 싶지 않다. 평범한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 미지는 여전히 교회가 변화길 기다린다. “차별금지법은 우리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잖아요. 당연히 ‘우리 모두’의 한가운데에 퀴어가 있구요. 언젠가는 나와 비슷한 사람도, 다양한 존재들이 아무렇지 않게 섞여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오겠죠?”

”

## 사랑, 환대, 포용… 제가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에요.

박정민 30대, 남성, 인권 활동가

박정민은 신학을 전공했다. 한때는 목회자가 될지 고민도 했지만, 졸업 후 교회가 아닌 인권 단체로 향했다. 장애인 당사자이기도 한 정민은 “신을 향한 탐구는 깊게 했는데 인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서” 인권 단체 활동가의 길을 선택했다고 한다.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절박하거든요. 누군가는 복지 혜택을 못 받아 오늘을 버티지 못하고, 누군가는 장애를 이유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못해요. 그 앞에서 기도만 하기는 너무 답답했어요.”

정민은 자신이 기독교인임을 먼저 드러내지는 않는다. “교회가 사회에서 어떻게 인식되는지 알잖아요. 저부터도 부끄럽거든요. 약자를 위한 종교라고 말하지만, 실제론 그 약자를 불편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점점 제 종교를 드러내지 않게 되었어요.” 차별금지법 이야기가 나오면 마음이 더 복잡해진다. “법이 생기면 가장 혜택 보는 건 우리 기독교인들일 수도 있어요. 지금도 기독교 신앙을 이유로 직장에서 불이익받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왜 반대를 할까요?” 차별금지법을 무조건 반대하는 이들을 만나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반대하려면 최소한 반대하는 법이 뭔지는 알고 반대했으면 좋겠어요.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동

성애 옹호법’이라고 몰아붙이는 건 무책임하잖아요.”

‘빠박 기독교인’인 정민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한다. “교회가 사회 안에서 다시 신뢰를 얻으려면, 자기밖에 모르는 집단이라는 인식을 깰 수 있어야 해요. 사람을 위한 신앙, 약자를 품는 믿음… 그게 복음이라면,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줄 차례죠.”

”

## 어떻게 하면 모두 함께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양윤영 60대, 여성, 권사

양윤영이 교회에서 권사 직분을 받은 지는 꽤 되었다. 활동도 활발하게 한다. 예배 빠지는 법 없고, 식당에서 봉사하고, 강단 꽃꽂이 봉사도 하고, 성가대에서 엘토 파트를 맡고 있다. 목사님의 말씀은 의심 없이 따르며 살아왔다. 교회에서 동성애는 죄라고 했다. 친구인 박 권사가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지를 들고 왔을 때, 동성애가 왜 공산주의랑 연결되는지 의아했지만 망설임 없이 이름을 적었다. 기독교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일로 딸과 심하게 다투기도 했다. 그래도 목사님 말씀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러다 딸이 덜컥 커밍아웃을 했다. 레즈비언이라고.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다. 다 자신의 잘못 같았다. “기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주님, 제가 무슨 죄를 지었나요. 제가 잘못 살아서 딸이 저렇게 된 건가요…” 딸은 눈물로 말했다. “엄마, 난 죄인이 아니야. 그냥 나야.” 윤영은 일생일대의 혼란에 빠졌다. 사랑하는 딸의 엄마, 성경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인, 교회 권사… 이 모든 것이 서로 충돌했다. 더 괴로운 건 교회 안에서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누구에게 말해요. 목사님께 말하면, 딸을 죄의 길에서 돌아오게 하라고 할 텐데…

나는 그럴 수 없어요.” 윤영은 점점 목사님의 말이 이상하게 들린다고 했다. “성경에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왜 내 딸은 존재 자체가 죄인처럼 여겨져야 하나요?” 처음에는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조장한다’라는 말만 들었다. 딸과 싸우고 눈물 흘린 밤들을 지나면서, 윤영은 스스로 법 내용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읽어보니까 동성애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장애인, 여성, 노인, 약한 사람들 지키는 법이더라고요.”

윤영은 아직도 헛갈린다. 동성애는 정말 죄인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 배운 건지. 딸은 여전히 소중한다. 교회도 버릴 수 없다. 그래서 오늘도 묻고, 배우려 한다.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서 내 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려는 거예요.”

”

##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외줄을 타고 있는 기분입니다.

나윤석 40대, 남성, 목회자

40대 후반, 중형 교회를 담임 중인 나윤석은 보수적 신학 교육을 받고 자라났지만, 복음은 시대와 삶 속에서 계속 새롭게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가던 그도 차별금지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니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한숨을 쉰다. “교회 성도님들이 무슨 전단을 들고 제 방으로 종종 찾아오세요. 그 전단을 가만히 보면 잘 모르는 제가 봐도 ‘가짜 뉴스’인 게 명백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분 중 법안 전체를 읽어본 사람은 몇이나 될까요? 저부터 읽어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이걸 교회가 제대로 논의조차 안 해보고 반대해도 되나?”

교회 안에서 무조건적인 반대 여론이 생겨나는 걸 보며 목회자로서 자괴감과 동시에 책임감을 느낀다. 동성애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단번에 정리하기는 어렵다는 현실을 직시하면서도, 교회가 이 문제를 오직 지금까지의 ‘성경해석’만 고집하면 사람을 놓칠 수 있다고 말한다. 그래서 그는 요즘 기회가 생길 때마다 ‘공공신학’이나 ‘정의와 환대’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고 있다. 몇몇 성도들은 불편해한다. 그래도 그는 멈추지 않기로 했다. “공격적으로 나가고 싶진 않아요. 그렇다고 침

묵할 수도 없죠. 제가 할 수 있는 건 복음의 의미를 상기하게 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각자의 신앙 양심 안에서 생각할 기회를 주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주변의 비슷한 고민을 하는 목회자들과 정기 모임을 시작했다는 그는 정치인들을 향한 당부로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정치인들이 교회 눈치 좀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눈치를 보니 효능감을 얻은 이들이 더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그런 집단에 속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변하면 교회도 변합니다. 교회는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책임질 테니, 정치인들은 필요한 법을 소신껏 만들어 주세요.”



---

차별금지법의 의미와 가치, 그리고 시대적 요청을 이야기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그런 공간이 늘어난다면  
아래로부터의 목소리가 교회에 균열을 일으키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다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40대 남성 그리스도인

# 차별금지법과 질문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를 비판하기만 해도 처벌된다거나 종교·신앙의 자유가 억압받는다라는 말,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차별금지법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불안과 우려가 과도하게 커진 상황은 우리 모두가 마주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교회 내에서 차별금지법에 오해가 계속 쌓이다보니, 사회구성원들이 서로를 존중하며 관계 맺고 사회가 좀 더 평등하게 바뀌기를 바라는 기독교인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의미를 접할 수 있는 다른 통로도 많지 않다 보니, 막연하게나마 ‘차별금지법은 필요한 것 같은데...’ 생각했던 기독교인들은 왜곡된 정보나 자극적인 선동에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더 필요한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 바로알기’입니다. 차별금지법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차별을 해소하고 평등을 증진시켜려는 노력이 왜 20여 년 가까이 이어져 왔는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아질수록 교회의 현재 조건 또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한 교회의 ‘오해’를 ‘이해’로 만들어가는 기독교인들의 실천 또한 그러한 변화 속에서 더 확장될 수 있습니다.

# Q.

##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목사님이 ‘동성애’ 이야기만 꺼내도 처벌되나요?

윤 집사는 예배를 마치고 교회 카페에서 몇몇 교인들과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던 한 교인이 이 심각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냅니다. “김 목사님이 조금 전에 단체대화방에 올린 글 보셨어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을 수 있대요.

동성애가 나쁘다고 말만 해도 잡아간다니, 무슨 그런 법이 다 있어요? 큰일이네.” 윤 집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얼마 전에 <차별금지법 ‘진짜’ 바로알기> 강의에서 들은 내용과는 너무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윤 집사는 어떻게 잘 전달해야 할지 자신이 들었던 강의 내용을 꼼꼼히 떠올려봅니다.

차별금지법은 ‘차별이 없어야 할 영역’을 크게 네 가지로 규정합니다. 바로 ① 고용(직장), ② 교육·훈련(학교나 직업훈련기관), ③ 재화·용역(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공간), ④ 행정서비스 영역입니다. 직장이나 학교, 상점, 공공기관과 같이 모든 사람들의 삶에서 필수적인 생활영역에서는 차별이 구체적으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 교회나 성당, 사찰과 같은 종교시설은 차별금지법이 적용되는 영역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에서 예

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거나, 신도들이 거리에서 전도를 하거나, 종교 집회에서 발언을 하거나, 교회에서 책을 출판하는 행위는 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종교행위’는 차별금지법과 무관하게 이미 우리 사회에서 종교·신앙의 자유로 보장되고 있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안에는 딱 하나의 ‘처벌’(벌칙) 조항이 있습니다. 바로 차별 피해자에게 ‘불이익 조치’로 보복을 했을 때, 차별 행위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차별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를 징계·해고하거나 퇴학시킨다면 그 피해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수개신교계가 이 조항을 왜곡해서 ‘동성애 발언만 해도 형사처벌 받는다’는 주장을 해 왔고, 사실과 다른 정보가 일반 기독교인들에게도 퍼지게 되었던 것이죠.

차별금지법의 근본적인 목적은 차별 행위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차별을 ‘시정’하고 ‘예방’하는 것에 있습니다. 처벌 위주의 접근보다는 차별 피해자의 권리를 원상회복 시킬 수 있는 방안을 폭넓게 마련하는 것이 차별 해소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차별금지법은 개별적인 차별 구제나 시정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차별에 대한 문제의식을 키우면서 차별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계획 수립과 정책 시행 등)을 주요하게 담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차별금지법은 크게 고용, 교육·훈련, 재화·용역, 행정서비스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합니다.
- 종교시설의 종교행위는 차별금지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차별금지법은 차별 행위자에 대한 ‘처벌’보다 차별의 ‘시정’과 ‘예방’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Q.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발언도 ‘표현의 자유’ 아닌가요?

교인들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목사님이 경찰에 잡혀가거나 처벌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우선 다행스러워 하는 분위기입니다. “동성애를 죄라고 믿는 건 각자 신앙의 영역 이잖아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교회에서 동성애가 나쁘다고 말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고 봐요.” 그런데 이어서 다른 교인이 꺼낸 말 한마디에 윤 집사는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되기도 하고, 같은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소수자 교인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 적용 대상에 종교시설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교회가 성소수자를 포함한 사회적 소수자들을 ‘차별해도 괜찮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에도 예를 들어볼까요? 2012년 제정된 「서울시학생인권조례」에는 학교장이나 교직원, 학생들이 성별이나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혐오표현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대해서 일부 기독교인 학부모와 교사들이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요. 그런데 2019년 헌법재판소는 차별·혐오표현을 금지한 「서울시학생인권조례」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sup>1</sup> 차별적 언어나 행동, 혐오적 표현은 민주주의의 장에서 허용되는 한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성적 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해서 특정한 종교적 견해를 가질 수는 있지만, 이를 근거로 성소수자를 위협하거나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선동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동성애는 죄’라거나 ‘동성애는 척결 대상’이라고 말하는 교회에서 성소수자 교인들은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일부 교인들은 어느새 성소수자에 대한 적대감을

갖게 되고, 또 일부 교인들은 사랑과는 멀어진 교회에 실망하며 떠나기도 합니다. 교회 내에서 차별·혐오·적대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힘을 발휘할수록, 소수자 권리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 또한 후퇴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짙은 바대로 차별·혐오표현은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도 소수자에 대한 적대감을 유발시키고 고취시키는 영향력이 커서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 또한 크기 때문입니다.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다하더라도 교회 내에서 성소수자의 존재와 권리를 부정하는 왜곡된 정보, 부당한 편견, 악의적인 선동에 함께 대처하고 맞서는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핵심 요약

- 민주주의 사회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표현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혐오표현은 성소수자의 존재와 권리를 부정하는 효과를 낳기 때문에 사회적 해악이 큼니다.
- 교회에서 차별과 혐오 대신 사랑과 현대의 분위기가 만들어질 때, 성소수자 기독교인들의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습니다.

---

1) 헌법재판소 2019. 11. 28. 선고 2017헌마1356 전원재판부 결정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Q.

###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조장하고 확산하는 법 아닌가요?

진우는 뉴스를 보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국무총리 후보자가 과거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선택하면 인류가 지속하지 못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차별하지 말자는 법 아니었어?’ 싶은 의문이 들었죠. 오랫동안 같이 일한 직장동료 민수 생각이 났습니다. 민수는 몇 년 전에 자신이 게이라고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는데, 그 전까지는 회사에서 위축된 것처럼 보일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민수가 커밍아웃 한다고 해서 우리 팀 사람들이 갑자기 게이가 된 것도 아니잖아. 그냥 민수가 자신을 숨기지 않을 수 있게 된 것 뿐이지.’ 진우는 후배인 지영과 나눴던 대화도 떠올립니다. 한국의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뉴스가 연일 나오고 있던 때였습니다. “야근과 과로에 지쳐서 언제 결혼하고 애 낳을 시간이 있겠어요.” 지영의 한숨을 떠올리며 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원인을 찾고 해결할 생각은 안하고, 또 엉뚱한 데 화살을 돌리면 어떡해.’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지, 타인에게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을 강요하는 법이 아닙니다. 물

론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그동안 자신의 정체성이나 삶을 숨기고 살았던 성소수자들이 더 많이 자신의 성적 지향과 정체성을 밝힐 수 있을 겁니다(커밍아웃).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채용이 거부되거나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상황이 줄어들 것이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성소수자가 늘어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소수자는 늘 사회구성원의 일부로 살아왔습니다. 늘어난 것은 성소수자 ‘인구’가 아니라 성소수자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당사자들의 ‘용기’가 아닐까요? 그동안 성소수자가 보이지 않았다면 그만큼 우리 사회가 성소수자에게 차별적인 사회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동성애로 인해 사회가 지속되지 못할 것이란 주장은 그 근거가 불분명합니다. 한국 사회는 전 세계에서 출생율이 가장 낮습니다. 반면 생활동반자법이나 동성혼을 제도화한 나라의 출생율은 한국보다 높습니다. 동성애와 저출생은 사실상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인류의 지속가능성을 걱정하게 하는 저출생 문제는 동성애로 인한 것이 아니라 장시간 노동, 결혼·출산에 따른 사회경제적 부담, 부실한 돌봄 제도 등의 문제라고 보는 게 더 합당합니다. 그리고 이미 가족을 형성하고, 인공수정을 통해 임신·출산하거나 입양과 양육을 하며 살아가는 성소수자 또한 적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떨어뜨리는 법이 아니라, 이미 우

리 곁에 있는 사람들의 삶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 성소수자의 47.4%는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한 경험이 있고, 전체 청소년의 자해나 자살 경험이 전체 청소년에 비해 약 5배 높은 수준입니다.<sup>2</sup>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된다면 성소수자 청소년들은 보다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나답게’ 살 수 있는 사회의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핵심 요약

- 차별금지법은 성적 지향을 강요하는 법이 아니라 부당한 차별을 금지 하는 법입니다.
- 차별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통해 시민들의 삶과 생명을 지킬 때 사회가 지속될 수 있습니다.
- 차별금지법은 성소수자를 포함해 모두가 ‘나답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토대입니다.

---

2) 한국청소년개발원, 『청소년 성소수자의 생활실태 조사』, 2006.

## Q.

### 차별금지법과 동성애 때문에 HIV/AIDS가 늘어난다는데 사실인가요?

수민은 주일 예배 후에 교회 청년부 소모임에서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중 한 교인이 얼마 전 외국에서 HIV가 완치된 사례를 뉴스에서 보았다고 이야기를 하자, 다른 교인이 말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애초에 동성애만 없었으면 HIV 같은 건 없었을텐데, 차별금지법을 만드네 뭐네 해서 지금 더 늘어난 거잖아요.” 교인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간호사이기도 한 수민은 용기를 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제가 간호사잖아요. HIV는 콘돔을 끼지 않는 것처럼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로 전염되는 거지, 동성애자라서 감염되는 건 아니예요.” “아... 그건 몰랐어요. 그런데 어쨌든 감염된 건 자기 잘못도 있는 거 아니예요?” 이어진 질문에 수민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때도 초기에 감염인에 대한 비난이 심하니까 오히려 사전 검사나 예방이 어려웠잖아요. 감염인이라고 비난할 이유는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걱정 없이 치료받도록 하는 게 잘 예방하는 방법이에요.”

HIV와 AIDS는 같지 않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HIV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의 영문 약어입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고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면역력이 떨어져서 여러 증세가 나타나는데, 이러한 상태를 후천성면역결핍증, 약어로 AIDS(에이즈)라고 칭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HIV에 감염된 것만으로는 어떠한 증상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HIV 감염인이 꾸준히 약만 잘 복용하면 AIDS 상태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HIV 감염은 고혈압과 같이 ‘관리 가능한 만성 질환’으로 봅니다. 특히 의학의 발달로 이제는 완치에 대한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HIV는 매우 약한 바이러스입니다. 공기 중에 노출되면 바로 전염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HIV 감염인과 함께 일상생활을 하면서 감염이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렇기에 HIV의 주된 감염 경로는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입니다. 동성애가 아니라, 동성애든 이성애든 상관없이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로 바이러스가 옮겨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안전하지 않다는 것은 콘돔을 사용하지 않거나 HIV 감염인이 치료를 꾸준히 받지 않고 하는 성관계입니다. 콘돔을 사용하거나, HIV 감염인이 꾸준히 약을 복용하면 성관계로도 감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HIV는 파상풍과 같은 3급 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HIV 감염인은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치료비의 90%를 지원받습니다. 이를 근거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국가가 감염병 치료를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감염인의 치료를 돕는 길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감염을 막기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일입니다. 감염인을 비난하고 낙인찍을수록 제대로 된 검사와 치료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감염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곧 최선의 치료이자 예방이며, 이는 HIV도 마찬가지입니다.

#### **핵심 요약**

- HIV와 AIDS는 다르며, HIV 감염은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입니다.
- HIV의 감염 경로는 안전하지 않은 성관계이며, 동성애와는 무관합니다.
- 감염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치료를 지원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입니다.

## Q.

###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남자도 여자 화장실 이용하는 걸 막을 수 없다는데요?

“이거 기사 봤어?” 지연은 같은 대학 기독교 동아리 친구인 수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동네 공중화장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해서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면 시를 통해 경보가 울리도록 한대. 어이없네.” 그런데 수미에게서 기대와는 다른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게 왜? 남자가 여자인 척 하면서 화장실 들어가면 문제잖아, 트랜스젠더인가 뭐 그런 사람들처럼. 우리 교회 목사님도 차별금지법 제정되면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생길거라던데.” 이 말을 듣고 지연은 조금 화가 났습니다. 지연은 지금까지 항상 짧은 머리를 유지하며 살았는데, 여자화장실에 갈 때마다 온갖 오해를 받은 경험이 많았거든요. “아니, 그런데 시가 여자나 남자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너무 단편적일 것 같지 않아? 나도 머리 때문에 하도 오해받으니까 화장실 갈 때마다 신경 쓰이고 불편하거든. 자신의 법적 성별과 외모가 불일치하는 트랜스젠더는 더 불편하지 않을까?”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살아가는 ‘트랜스젠더의 삶’과 ‘성범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는 태어나면서 법률적으로 정해진 성별과 자신을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법적으로 남성이지만 여성

으로 살아가는 ‘트랜스젠더 여성’, 반대의 경우인 ‘트랜스젠더 남성’, 그리고 남성/여성이 아닌 다른 성별로 자신을 인식하는 ‘논바이너리 트랜스젠더’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랜스젠더의 삶은 다양하지만 공통점은 법적 성별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의 차이로 인해 여러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어려움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을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누구에게나 필요한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트랜스젠더는 겉으로 보이는 성별과 자신이 인식하는 성별이 다르다는 이유로 화장실조차 마음 편히 이용하지 못합니다. 2020년에 이루어진 연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의 47%가 화장실 가는 것을 피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밖에서는 물조차 마시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은 꼭 트랜스젠더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머리가 짧은 여성, 머리가 긴 남성도 외모로 인해 화장실을 이용할 때 오해를 받거나 모욕적인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누구나 차별 없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건 기본 상식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성별과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함으로써 트랜스젠더를 포함해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일상 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물론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더 쉽게 ‘침입’할 수 있

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트랜스젠더가 화장실 사용하는 일과 성범죄 문제는 다른 일입니다. 트랜스젠더이든 아니든, 성범죄는 관련 법령에 근거해 당연히 처벌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고 해서 화장실에서의 성범죄가 늘어날 이유도 없고, 실제로 외국을 보아도 그런 개연성을 보이는 사례도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은 모두가 안전하고 평등하게 살아가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는 법이니깐요.

#### 핵심 요약

- 트랜스젠더는 법적으로 태어난 성별과 다른 성별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 트랜스젠더는 여러 차별을 겪으며, 편안하고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 차별금지법은 성범죄의 증가 여부와는 관계가 없고, 모두의 안전하고 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법입니다.

## Q.

###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범죄자도 제한 없이 일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닌가요?

TV를 보던 수진은 경악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생기면 성범죄자도 어린이집에서 일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를 한 정치인이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무서운 일 아니야?” 걱정이 떠나지 않던 수진은 다음 날 친구 정민을 만나자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정민이 웃으면서 핸드폰으로 링크 하나를 보내주었습니다. “방송 후에 SNS에 들어갔더니 1,000번 넘게 공유된 글이 있는 거야. 보니까 그 정치인이 한 말에 반박하는 내용이더라고. 대선 후보까지 한 정치인인데 그렇게 사실이랑 다른 이야기를 마구잡이로 하면 어찌 나면서, 성범죄자를 어린이 관련 기관에 취업 못하게 하는 건 어린이를 보호하는 조치니까 당연히 차별이 아니고, 차별금지법이 생겨도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는데? 이미 다른 법에도 명시되어 있고.” 수진은 황당하면서도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전과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다고 했거든요. “우선 내가 보내준 글 한번 읽어봐.” 수진은 링크의 글을 읽고 정민과 좀 더 이야기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성범죄자도 어린이 대상 기관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가 있지요. 이것은 차별금지법에 대한 공포를 조장하는

대표적인 가짜 뉴스입니다. 차별금지법은 사람을 다르게 대우하는 것을 모두 다 금지하는 법은 아닙니다. 어디에나 그렇듯이, 차별금지법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기관에 취업하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제한받습니다. 이것은 아동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가 함께 합의하여 만든 합리적인 조치이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차별금지법이 말하는 ‘전과 차별’이라는 건 뭘까요? 과거에 저지른 범죄로 이미 처벌을 받은 사람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취지의 내용은 사실 차별금지법뿐만 아니라 다른 법률에도 이미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역시 범죄경력자료를 불법으로 조회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을 방지합니다.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전과를 이유로 한 차별을 시정하라고 권고한 내용을 잠깐 살펴볼까요? 한 연구소의 기간제 연구직 모집에 응시해서 합격한 A씨는 과거에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소가 이 사실을 들어 채용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연구소에 응시한 시점은 형의 실효 기간이 지나 있었고, 국가인권위는 이를 업무와 관련 없는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채용 차별’이라고 결정했습니다.<sup>3</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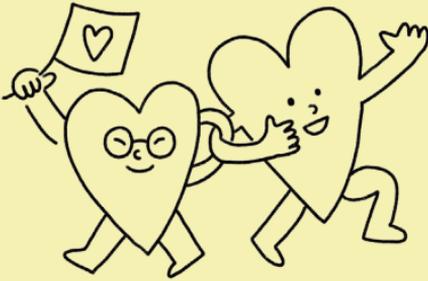
그렇다면 전과 차별을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형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낙인을 막고, 전과자가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어떠한 전과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업 제한과 같은 불이익이 가해질 수 있고, 차별금지법도 이처럼 관련 법률에 근거한 합리적인 제한을 따릅니다. 하지만 관련 법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전과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취지입니다. 그렇기에 차별금지법은 법적인 근거 없이 단지 편견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민주사회의 원칙을 단단하게 다지는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도 성범죄자는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할 수 없습니다.
- 차별금지법이 말하는 '전과 차별 금지'는 형이 실효된 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과거 범죄 사실만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차별금지법은 편견을 줄이고 차별을 해소함으로써 인간의 존엄과 우리 사회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3) 국가인권위원회 2022. 2. 24.자 결정 21진정0715500 '공공기관의 실효된 전과를 이유로 한 채용에 서의 불리한 대우'



---

만약 제가 성소수자 당사자였다면  
교회 공동체는 나를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을 거예요.  
안전하게 받아들여진다는 느낌을 주지 않았을 테니까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간다는 천국에 대한 의구심도 싹틀 테고요.  
하나님 나라에 커트라인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천국이 고작 그런 거라면, 너무 후지지 않나요?

40대 여성 그리스도인

# 차별금지법의 약속

### “당신은 차별을 겪어본 적 있나요?”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평등하고,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동등하며, 차별받지 않아야 합니다. 누구도 이 명제를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수많은 차별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주기적으로 <사회통합실태조사>를 진행하고, 한국 사회의 사회통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2022년 조사에서 시민들은 다양한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습니다. 나이(15.5%)가 가장 많았고, 경제적 지위(11.4%), 학력·학벌(10.0%), 고용형태(9.0%), 성별(8.1%) 순으로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나이가 많거나 적다고, 가난하다고, 학력이 낮다고, 비정규직이라고, 여성 또는 남성이라는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가난에 대한 혐오와 낙인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최근 경기도의 한 수영장에서는 ‘저소득일수록 청결하지 못하다’는 안내문을 부착한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러한 일들을 마주해야 할까요.

무엇보다 국가가 나서서 차별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평등권이 있으니 모두가 평등하다는 선언만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차별이 무엇인지, 어떤 차별을 하면 안되는지, 차별을 받은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국가는 무엇을 할 수 있고 해야 하는지를 규정한 법률이 필요합니다. 법이 모든 차별을 없앨 수 없지만, 법조차 만들지 못하면서 만연한 차별을 없애나갈 수는 없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바로 이렇게 차별에 맞서고 헌법이 요구하는 평등을 실제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법입니다.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는 사회라면 기본적으로 있어야 하는 법률입니다. 그렇기에 미국, 영국, 독일 등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률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 “평등은 누군가를 남겨놓고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한국 사회에서 본격적으로 이야기된 것은 2007년입니다. 당시 차별금지법 제정은 국정과제 중 하나였고, 법무부는 정부 임기 내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차별금지법안이 규정한 차별금지사유 몇 개를 놓고 보수개신교가 반대했습니다. 결국 법무부는 ‘성적 지향, 학력, 병력, 출신 국가, 언어, 범죄 전력,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7가지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하고 법을 발의해버렸습니다.

모든 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실현하겠다는 법이 논란이 되는 몇 가지 사유를 빼고 발의된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삭제된 7개의 사유로는 차별을 해도 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가능할까요? 장애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되지만, 병에 걸린 사람은 차별해도 된다. 나이 어린 어린이를 차별해서는 안되지만, 한부모 가족이라면 차별해도 된다. 여성이라고 차별해서는 안되지만, 여성 성소수자는 차별해도 된다. 이런 법률을 차별금지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學歷), 고용 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 신분

지난 국회에 발의된 차별금지법안들은 21개에서 23개의 차별금지사유를 예시로 두고 있습니다. 좀 많아 보이나요?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위에 열거된 사유 중 어느 하나로 차별을 겪었거나, 다른 누군가가 차별하는 것을 본 적이 있는지 한 번 떠올려 보세요. 차별금지사유를 상세하게 규정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주목해야 하는 차별들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3가지의 사유는 한국 사회에서 누군가 이러한 이유로 인해 차별을 한 번씩은 경험해보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차별금지사유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구체적인 차별의 양상을 인식하고 바뀌나갈 수 있는 역할을 하며, 그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누구도 차별받지 않게 하겠다는 사회의 약속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 차별금지법은 종교인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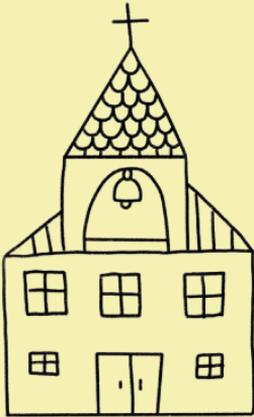
### “종교의 자유는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하이너 비엘펠트 (前 유엔 종교의 자유 특별보고관)

헌법은 평등권과 함께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개인이 신앙을 갖고 표현하는 것을 기본적 권리로 보장합니다. 그리고 국가가 특정한 종교만을 우대하거나 억압하지 않고 모든 시민들의 신앙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것을 요구합니다. 만약 어떤 권력자가 자신이 믿는 종교만을 절대적이라고 보고 모두가 같은 종교를 믿을 것을 강요한다면 이는 민주사회라고 볼 수 없으니까요. 그렇기에 종교의 자유는 평등과 더불어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입니다.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마치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종교의 자유가 위축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 특히 기독교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평등하지 않고, 누군가를 어떠한 이유로든 차별해도 된다고 여기는 사회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도 차별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기독교인도 종교때문에 차별당하는 입장에 놓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교회는 시끄럽다는 이유로 건물 임대료를 안 해주거나, 기독교인을 비하하는 용어들이 종종 쓰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등이 보편적 가치로 자리잡은 사회라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한국 사회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 딱 인구의 절반 정도이며, 그 안에서도 다양한 종교가 공존하는 다종교 국가입니다. 또한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종교인으로 살기도 하지만 아동으로, 노인으로, 여성으로, 남성으로, 성소수자로, 장애인으로, 노동자로 다양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시민이기도 합니다.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의 종교를 갖고 시민으로서 차별받지 않는 사회,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야 할 민주사회가 아닐까요. 그렇기에 차별금지법은 종교를 가진 모든 시민을 위한 법이기도 합니다.



---

하나님은 성소수자를 차별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차별하는 것입니다.

성소수자도 마음 편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입니다.

50대 여성 그리스도인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 그리고 교회**

## 환대의 신학:

### 배제와 혐오 대신 환대와 사랑을

## [ 기독교 신앙의 기원은 환대입니다 ]

유대인, 그리스도인, 무슬림이 공통으로 ‘신앙의 조상’이라 부르는 아브라함은 떠돌이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에게 적박한 환경보다 더 두려운 것은 타자에 대한 적대였습니다. 유목 생활의 고난을 뼈저리게 경험한 아브라함은 자신과 같은 처지의 취약한 타자를 따뜻하게 환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유목적 환대를 가장 생생히 보여주는 사건은 마르레에서 세 나그네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어느 무더운 날, 상수리나무 곁에 앉아 있던 아브라함은 낯선 ‘세 사람’을 발견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을 자기 장막으로 초대해 발 씻을 물과 쉼 자리를 제공하고 음식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그 낯선 이들을 ‘세 천사’가 아니라 ‘세 사람’이라고 부른 것은, 아브라함이 그들의 정체를 몰랐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세 사람이 누구인지 묻지 않고 베푼 아브라함의 환대는 아름다우면서도 위험한 행위였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을 해칠 적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는 환대는 복을 가져오고 적대는 화를 부른다는 사실입니다. 나그네를 환대 한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는 복을 누렸지만, 나그네를 적대한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멸망했습니다. 일부 기독교인은 소돔과 고모라

의 파멸을 동성애 탓으로 돌리지만, 두 도시 사람들의 진정한 죄는 그들을 찾아온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고 적대한 데 있었습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나그네, 곧 사람에게 대한 아브라함의 환대는 하나님에 대한 환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아브라함을 ‘주의 벗’이라고 불렀고(역대하 20:7),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다”(히브리서 13:2)라고 기록했습니다. 낯선 나그네를 환대함으로써 하나님을 환대하고 하나님의 친구가 된 것입니다.

## 【 하나님은 약자와 소수자의 하나님입니다 】

성경은 ‘환대의 책’입니다. 성경에는 나그네 환대 이야기가 풍부합니다. 구약성경이 드러내는 하나님은 나그네, 고아, 과부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저자는 이스라엘 사회에 나그네로 온 이들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라고 설명합니다(신명기 10:18-19). 이는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과 그의 가족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피신했던 나그네, 즉 난민이었던 역사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야곱 가족은 처음엔 이집트 총리가 된 요셉 덕분에 파라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했던 후대 파라오의 변심으로 히브리인들은 환대받던 난민에서 학대받는 노예로 전락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의 신음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역사에 개입하셨습니다. 이집트에서 히브리인들을 탈출시키면서 하나님은 이집트인

들을 열 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나그네를 환대하지 않고 학대했기 때문입니다. 구약성경에는 히브리인들에게 그들도 이집트에서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반복은 강조의 방식입니다.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것입니다. 랍비 조너선 섉스는 구약성경에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한 번 나오지만, “나그네를 사랑하라”는 명령은 서른여섯 번 나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앙의 참된 핵심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 즉 ‘낯선 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시대의 나그네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약자요 소수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교회가 환대해야 할 우리 사회의 ‘나그네’, 우리가 우선적으로 사랑해야 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는 누구일까요?

## [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무조건적 환대의 공동체였습니다 ]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 사실을 요한이 탄식하며 기록했습니다. “그분께서 당신 땅에 오셨지만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요한 1:11).” 예수님은 갈릴리의 가난한 마을 나사렛에서 자랐고, 공생애 동안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한 곳도 대부분 갈릴리 호수 주변의 작은 마을들이었습니다. 모두 정치, 종교, 문화의 중심지 예루살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변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심지어 혐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는 예수님을 “속이는 자”(요한 7:47-48), “마귀들린 자”(요한 8:52),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루카 7:34)라고 비난하며 배척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자’로 몰아 십자가에 못박았습니다(마태 26:65-66). 그러나 놀랍게도, 이처럼 지독한 차별과 혐오를 겪으신 예수님은 ‘무조건적 환대’의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적, 사회적으로 배제된 이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환대하고 사랑하며 돌보는 ‘하나님 나라’를 지상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복음서는 예수님이 약자, 소수자와 당신을 존재론적으로 동일시했음을 증언합니다. “여러분은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내가 나그네였을 때에 따뜻이 맞아들였습니다. 또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으며,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습니다(마태 25:35-36).”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환대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를 환대하는 것임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님의 환대를 기억하고 재현하고자 했던 수도사들은 “손님이 오시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다”(Hospes venit, Christus venit)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베네딕도 수도규칙』). 오늘날 기독교인의 과제도 가난한 자,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노인, 비정규직 노동자, 이주민, 난민 등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환대하는 것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 【 교회의 ‘현저한 특징’은 혐오가 아닌 사랑입니다 】

교회는 역사 속에서 생성되고 변화해 왔습니다. 이는 교회가 시대의 제약을 받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불평등한 신분제나 노예제가 당연한 사회질서나 통념이었던 시대에는 교회도 그것을 지지하거나 정당화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하나라고 선포한 바울도 노예 제도를 부정하지 않았고, 여성을 열등한 존재로 보는 기독교 전통의 관점은 근대에 이르기까지—어쩌면 현대에도—지속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성경과 교회 전통에는 급진적 평등 사상과 환대 정신도 뿌리 깊게 존재해 왔습니다. 이집트에서 차별받고 착취당하던 히브리 노예들을 해방하신 하나님, 불의를 규탄하며 사회적 약자의 인권을 옹호한 예언자들, 종교적,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혐오당하는 이들을 포용하고 사랑하신 예수님, 이런 평등과 환대의 정신이 교회의 기원이자 본질입니다. 차별과 혐오의 질서가 세상을 지배할 때, 교회의 질서인 사랑은 전복적 힘이었습니다. 기독교의 본질과 독특성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2세기 교부 터툴리안은 그리스도인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위해 기꺼이 죽기까지 하는 모습이, 서로 혐오하고 죽이는 세상의 사람들이 인식하는 그리스도인의 ‘현저한 특징’이라고 했습니다. 역사의 중요한 변곡점마다 그리스도인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차별과 혐오와 배제의 이야기와 평등과 사랑과 포용의 이야기 중 무엇을 선택했는가에 따라 교회는 역사를 퇴보시키거나 진보시켰습니다. 오늘의 한국 교회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우리 시대 그리스도인의 ‘현저한 특징’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 [ '22세기 사람들'은 오늘의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요? ]

20세기 말, 노르웨이의 심층생태학자 아르네 네스는 자신을 “22세기에 대해 낙관하는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람들이 “아, 21세기를 말씀하시는 거죠?”라고 묻자, 그는 “아니요, 22세기입니다.”라며 자기 말을 재확인했습니다. 네스는 21세기를 “극도로 나쁜 시대”라고 예견했으며, 실제로 21세기 초의 세계엔 전쟁, 폭력, 극우주의, 팬데믹, 기후 위기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습니다. 네스는 인류가 한 세기는 더 노력해야 세상이 나아질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의 말은 비관처럼 들리지만, 사실 네스는 자신을 “단기적으로는 비관론자이고, 장기적으로는 낙관론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노력에 따라 22세기의 모습이 결정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스의 말을 곱씹으며, 22세기 사람들이 21세기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기억할까 궁금해집니다. 그들이 21세기 한국교회를 탐구하면서, 교회가 성소수자를 차별하고 혐오한 역사만 발견하고 환멸에 빠질지, 아니면 예수의 복음에 따라 용기 있게 환대와 사랑을 실천한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음을 알고 기뻐할지는 오늘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달려 있습니다. 22세기 그리스도인들이 21세기의 우리를 자랑스럽게 기억할 수 있도록, 모두를 환대하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들어가야겠습니다.

## 평등의 연대기:

### 육우당부터 초록나무까지, 20가지 장면들

기독교가 차별과 혐오가 아니라 '환대의 신학'임을 알리고 실천해 온 역사는 길고 깊습니다. 바로 이 역사 속에서 성소수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차별금지법과 함께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가려는 노력 또한 계속되어 왔지요. 이 역사를 디딤돌 삼아 우리는 또 어떤 평등의 연대기를 이어가게 될까요?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를 떠올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 온 길을 따라가봅니다.

# 01

2003년 4월 25일. 성소수자 청소년 육우당이 세상을 떠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7조 ‘유해매체 심의 기준’의 동성애 조항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은 ‘동성애자를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불로 심판해야 한다’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동성애자인권연대(동인련, 현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활동가이자 독실한 천주교인이었던 육우당은 깊게 절망했다. 그는 ‘술, 녹차, 담배, 파운데이션, 목주, 수면제’를 친구 삼고 시조 시인을 꿈꾸던 사람이었다. 또한 기독교인들이 성소수자를 버려야 끝으로 내몬다 하더라도, 창녀와 앓은뱅이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예수님이 성소수자에게도 그 사랑을 보여줄 것이라 믿는 사람이었다.

당신 어디 계신가요. 내 음성 들리나요.  
십자가를 안고 있는 내가 보이시나요.  
기다림에 지쳐 잠이 들고 말았네요.  
이 길 따라 흘러가면 극락할 수 있을까.  
한 많은 내 영혼이여 연꽃 타고 쉬어가렴.  
- 육우당의 시 ‘혼’ 중에서

## 02

2003년 6월 5일. 육우당의 죽음을 “한국 기독교에 의한 사회적 타살”이라 규정한 동인련과 기독교 단체들은 한기총 사무실 앞에서 ‘故 육우당 추모예배 및 한기총 공개사과 촉구 항의 방문’을 진행했다. 7월 22일에는 육우당의 죽음 앞에서 침묵하는 한기총을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기독교가 “이 시대의 인권을 품어내는 해방과 자유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육우당을 기억하기 위한 노력은 기독교 내 성소수자 차별과 혐오의 현실에 대응하는 운동이 더 깊은 연대로 나아가는 출발선이 되었다.

## 03

2004년 6월 18일. 故 육우당 1주기 이후 한국기독교청년학생연합회(한기연)는 <강요된 침묵, 기독교 안의 동성애… 입을 떼다> 공개 강연회를 열었다. 강연자인 현경 교수(유니온신학교)는 말했다. “사람이 빵만 먹고살지 않는다. 임금, 권리와 같은 일도 중요하지만 내가 누구를 사랑할 것인가, 누구와 잘 것인가를 선택할 권리도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권리다. 그것을 막는 일은 정말 죄악이다. […]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는 동성애 문제를 이해하는 핵심적 관건이다. 성경이 곧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의 메타포이며 심볼이다.”

# 04

2007년 10월 2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처음으로 차별금지법안이 입법 예고됐다. 하지만 보수개신교의 거센 반발을 ‘의견’으로 받아들인 정부는 12월 12일 ‘성적 지향’을 비롯해 ‘학력, 출신국가, 언어, 병력,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7개의 차별금지사유를 삭제한 채 법안을 발의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기독교 단체들은 ‘누더기 차별금지법안’을 반대하며 토론회를 이어갔다. 2007년 12월 4일, 12개 기독교 단체는 차별금지법 관련 범 기독교 토론회 〈차별하지 않으시는 야훼〉를 열었고, 이는 2008년 ‘차별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연대(차세기연)’의 출범 계기가 되었다. 2008년 1월 29일, 차세기연 주최로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입장을 가진 신학자와 목회자들이 참석한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한 범기독교 토론회〉가 열렸다. 임보라 목사(향린교회)는 발제에서 “성소수자들은 이미 교회 안에 있다. 치유되거나 불쌍한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인의 입장”임을 강조했다.

## 05

2010년 10월 30일. 차세기연 주최로 ‘이道저道 무지개 축제’가 열렸다. 이 축제는 2013년까지 네 차례 진행되었다. 임보라 목사는 동인련 웹진 인터뷰에서 축제가 가진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다. “당사자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성소수자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되는 예배가 되면 좋겠어요. [...] 무지개 상징물도 물론이고 양초 하나도 정성들여 불을 밝힐 거예요. 우리의 생기에 새로운 불을 붙여 나간다는 의미를 담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세상을 향해, 내가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렇게 존재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결의랄까요? 세상을 향한 선포랄까요?”

## 06

2013년 4월. 동인련은 故 육우당 10주기를 맞아 22일부터 28일을 추모주간으로 정하고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위한 캠페인과 기자회견, 문화제 등을 진행했다. 추모주간 중 4월 25일에는 동인련, 차세기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기연이 ‘청소년 동성애자 故 육우당 10주기 추모 기도회 - 이름없이 잊혀져간 이들을 성소수자라는 존재 그 자체로 기억합니다’라는 이름의 추모기도회를 공동으로 진행했다.

## 07

2014년 6월 7일. 서울 신촌에서 열린 제15회 서울퀴어문화축제 ‘사랑은 혐오보다 강하다(Love conquers hate)’에서 섬돌향린교회, 성공회 길찾는교회 등이 ‘퀴어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 부스를 열고, 목회자들이 축복식을 진행했다. 광장의 한 편에서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결집하여 반대 기도회를 열고 퍼레이드를 대대적으로 방행하며 행진이 상당 시간 지연되었고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이후 보수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동성애 혐오선동세력은 퀴어문화축제 반대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 08

보수 기독교의 조직적인 반동성애 활동은 ‘기독교 세력화’에 대한 성찰과 논쟁으로 이어졌고, 이에 대한 다양한 공론장이 열렸다. 2015년 9월 22일 이화여대 신학대학원과 여성신학연구소 주최로 <성소수자와 목회: 무지개 목회를 향하여> 강연회가 열렸고, 2015년 11월 7일에는 현대기독교연구원과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주최로 <한국교회, 동성애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포럼이 진행되었다.

## 09

2016년 3월 9일. 전환치료근절운동네트워크(전근넷)는 ‘전환 치료(동성애 치유)는 폭력이다’를 선언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2015년 경남 진주에서 교회 목회자가 ‘치유 사역’라는 명목으로 트랜스젠더인 자녀를 폭행하고 학대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법률, 심리상담, 종교, 건강, 성소수자 등의 의제에 대응해 온 단체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결성했다. 이렇게 시작된 전근넷은 누군가의 정체성을 ‘원래의 것’으로 되돌리겠다고 이루어지는 ‘탈동성애, 동성애 치유 상담, 전환 치료’가 폭력임을 알리며 적극 대응해갔다.

## 10

전근넷에 참여했던 단체와 개인을 중심으로 ‘무지개-예수’라는 온라인 대화방이 열렸다. 이 대화방은 이후 ‘무지개예수’라는 네트워크로 발전해 차세기연의 역할을 이어 받았다. 무지개예수는 2016년부터 퀴어문화축제에서 부스를 열어 축복식이나 성찬식, 무지개 예배를 진행하고 때로는 퍼레이드 차량으로 참여하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갔다. 2017년부터는 故 육우당 추모 기도회를 주관했고, ‘무지개 교회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무지개 교회 지도’를 공개했다.

# 11

2017년 6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은 ‘이단 사상 조사 연구에 대한 자료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임보라 목사(섬돌향린교회)에게 보냈다. 보수 기독교에 대항해 성소수자 권리를 위한 다양한 반차별 운동을 해 온 임보라 목사의 활동을 ‘이단’으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을 공식화한 것이었다. 이에 향린교회, 강남향린교회, 들꽃향린교회, 섬돌향린교회로 구성된 ‘향린공동체’ 교인들은 임보라 목사 지지 기자회견을 열고 임보라 목사를 향한 이단 시비는 ‘현대판 마녀사냥’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2018년 교단 총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대신은 임보라 목사와 퀴어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했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은 “이단성이 매우 심각하다”고 결의했다.

# 12

2017년 10월 12일부터 11월 30일까지 퀴어신학아카데미가 주관하고 길목협동조합이 주최한 <퀴어스레 신학하기> 세미나가 8주 동안 열렸다. 이 세미나는 이후 퀴어신학아카데미의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 13

2018년 4월 뉴미디어 매체 닷페이스가 기독교 내 ‘탈동성애 운동’의 문제를 짚은 ‘구원자: Save me’ 시리즈 영상을 공개했다. 이후 5월 17일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폭력에 반대하며 성소수자 및 기독교 단체들과 닷페이스가 함께 ‘우리, 서로의 기도가 되다 - 전환치료 근절을 위한 기도회’를 열었다. 성탄절을 앞둔 12월 21일에는 차별금지법제정 연대와 기독교 단체들이 연합하여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차별금지법’ 거리 기도회를 열고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 모두가 존중받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뜻임을 알렸다.

# 14

2018년 9월 8일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보수 기독교 세력이 행한 조직적인 방해와 집단적인 폭력은 성소수자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시민 사회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이러한 혐오와 폭력에 지지 않기 위해 목회자들은 2019년 8월 31일에 열린 제2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함께 하는 축복식’을 진행했다. 대한기독교감리회(감리회)는 이 축복식에 참여한 이동환 목사를 재판에 회부했다. 교단은 마치 본보기를 삼으려는 듯 편파적인 재판을 강행하며 집단 괴롭힘을 자행했다. 결국 이동환 목사는 정직 2년 징계를 받았고 이후에는 출교가 확정되었다. 감리회

의 조치는 다른 교단에도 영향을 끼쳐 성소수자 환대 목회를 하고자 하는 신학생과 목회자를 단속하는 제도를 만들어갔다. 하지만 교단의 괴롭힘에도 불구하고 퀴어문화축제에서의 축복식은 계속 진행되고 있을 뿐 아니라, 축복식에 참여하는 목회자들의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 15

2021년 4월. 번역 작업이 시작된 지 6년 만에 『퀴어 성서 주석 1. 히브리 성서(QBC)』가 출간되었다. QBC는 번역 소식이 알려진 2017년부터 주요 보수 교단에 의해 ‘금서’로 지정되었지만, 크라우드 펀딩에 900여 명이 참여하며 뜨거운 관심을 모았다. QBC는 2014년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난입한 보수 기독교인들의 혐오 행태에 문제의식을 느낀 임보라 목사가 번역가를 모집하며 시작되었다. QBC의 의미에 대해 임보라 목사는 이렇게 평가했다. “주석을 번역할 때 신학자를 비롯해 연구자, 평신도, 목회자가 참여했습니다. 이는 QBC가 ‘다양성의 집합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 16

2021년 9월 6일.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평등세상)’가 공식 출범했다. 평등세상의 출범은 차별금지법의 의미와 제정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는 기독교 운동 단체들이 2020년 7월 22일 국회 앞에서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을 위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지지합니다!’ 기자회견을 함께 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평등세상은 “법 제정과 제도 마련에서 멈추지 않고, 모든 소수자와 약자를 환대하는 사랑이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의 문화가 되고 일상이 되고 기본이 될 때까지 계속하여 기도하고 연대하며 행동할 것”을 다짐했다.

# 17

2021년 11월 8일. 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이 본격화된 지 15년 만에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 국회 앞에서 첫 농성을 시작했다. 불교, 천주교, 개신교, 원불교 4대 종단도 매주 화요일 농성장을 함께 지키며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화(和)요기대회’를 이어갔다. 평등세상은 정치권을 향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활발하게 개진했다. 2021년 11월 25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주최한 <평등법(차별금지법) 토론회>에, 두 번째 단식농성이 진행되던 2022년

5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가 주재한 <‘차별금지법 (평등에 관한 법률)’ 제정 관련 공청회>에 종교계를 대표해 나섰다. 두 자리에 참여한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자캐오 신부는 거듭 강조했다. “특정 종교적 신념의 압력에 물려서서 ‘사회적 합의’라는 모호한 수사 뒤에 숨지 말아야 합니다.”

## 18

2022년 2월 17일.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과 NCKK 정의평화위원회는 한국 교회 최초의 성소수자 목회 안내서인 『차별 없는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출간했다. 2018년 5월 서울에서 성소수자 목회 가능성을 논의하는 국제회의 <함께하는 여정: 포용과 환대의 공동체를 향하여> 개최를 계기로 모인 목회자들과 성소수자 교인 11명이 집필에 참여해 완성했다. 안내서에는 성소수자 관련 용어부터 자주 하는 질문, 성서와 성소수자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실제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까지 성소수자 교인과 함께 하고자 하는 목회자와 교회에 필요한 내용을 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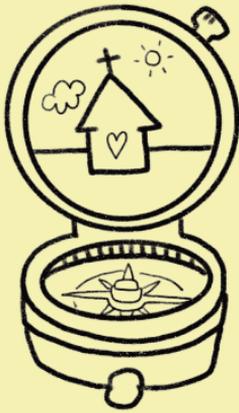
# 19

2023년 2월 4일. ‘아픔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임보라 목사가 세상을 떠났다. 그의 ‘떠남’으로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인권시민사회의 많은 이들이 비통함에 잠겼다. 하지만 비통함을 딛고 임보라 목사의 삶과 활동을 기억하면서 그의 뜻을 이어 가려는 이들이 연대해 ‘임보라목사기념사업회’를 만들었다. 11월 18일 발족한 기념사업회는 ‘초록나무’라는 임보라 목사의 별명처럼 그의 삶과 활동이 영영 푸른 나무로 기억될 수 있도록, 또 다른 ‘초록나무’들을 만들고 숲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연구·교육·문화·연대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내 혼은 꽃비 되어 당신 곁에 내리는데  
당신은 이런 나를 못 느끼고 계시군요.  
임이여 내 속삭임에 귀 기울여 보아요!  
- 육우당의 시 ‘환생’ 중에서

# 20

평등세상은 2024년 11월 14일부터 17일까지를 ‘2024 그리스도인 평등 주간’으로 선포하고, ‘따뜻한 소란, 평등한 우리’를 주제로 여러 행사를 진행했다.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축하하며 서로 돌보는 시간으로 이루어진 평등 주간은 소수자도, 소수자와 함께하는 기독교인도 ‘홀로’가 아니라 ‘함께’임을 확인하는 시간이었다. 평등세상은 매년 ‘평등의 날’을 기념하며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

제가 활동하는 모임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에 반대해요.  
저 역시 예전에는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었지만  
모임을 통해서 성소수자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어요.  
변화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노력들이 변화를 앞당긴다고 생각해요.

60대 여성 그리스도인

차별금지법과  
평등세상으로 가는 길

## 엘라이 기독교인을 위한 행동 십계명

기독교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환대와 사랑과 정의를 품은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차별과 혐오를 '신앙'이라 주장하는 흐름에 대항하여, 기꺼이 환대와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자 모인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어떤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신앙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단체대화방의 혐오 발언, 설교단의 차별적 메시지, 교회 안의 배타적 분위기...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인은 어떻게 성소수자 엘라이가 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모아 교회와 일상에서 마주하는 현실적 고민에 대한 구체적 대응 방법과 그룹 토의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서 우리 신앙 공동체가 모든 이웃을 환대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길 소망합니다.

## 01. 올바른 정보의 전달자가 되세요

단체대화방이나 SNS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거짓된 정보,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글을 발견한다면, 우선 그 정보의 출처와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세요. 만약 혼자 대처하기 어렵다면 즉각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신뢰할 만한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해당 내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먼저 파악한 후 거짓된 정보를 바로잡으세요.

## 02. 목회자의 성경 해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목회자가 차별에 입각한 성서 해석을 하거나 혐오를 조장하는 설교를 한다면, 정중하지만 분명하게 질문하거나 의견을 전달하세요. 교인들과 그와 관련한 이야기를 나눠도 좋습니다. 목회자도 틀린 정보를 전달하거나 한계가 분명한 성서 해석과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 03.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안전한 울타리를 세우세요

교회와 신앙 공동체에서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안전하게 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데 힘쓰세요. ‘울타리’는 함께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거짓된 정보나 혐오를 조장하는 이야기가 나온다면, 대화를 멈추고 잘못된 점을 바로 잡으세요.

## 04. 경청하세요

성소수자 당사자의 이야기를 들을 때, 옳고 그름을 재단하기보다 먼저 귀 기울이세요. 온전한 경청은 존중과 환대의 첫걸음입니다.

## 05. 서로를 존중하는 대화를 하세요

익숙한 농담이나 비유, 일상적 대화 속에서 성소수자를 희화화하거나 배제하는 말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렇다고 ‘침묵’을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동안 사용한 언어를 점검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며 말하는 법을 익힐 기회로 삼으세요.

## 06. 보이지 않는 이웃을 기억하세요

내 주변에 성소수자가 없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가 성소수자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성소수자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이웃을 생각하며 말하고 행동하세요.

## 07. 기도하고 성경을 새롭게 해석하세요

성소수자와 차별받는 이들을 위해, 한국 교회가 환대와 사랑을 실천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리고 성경 해석을 새롭게 하세요. 성경은 오랜 역사를 거쳐 끊임없이 재해석되어 왔습니다. 성경을 시대 변화를 고려하여 주체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는 방법을 익히세요. 차별 없는 신앙의 언어를 전수하세요.

## 08. 구체적으로 실천하세요

평범한 사람들의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내가 앨라이 기독교인임을 표현하세요. 차별금지법 지지 서명을 하거나, 캠페인과 교육에 참여하거나,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거나 앨라이 굿즈를 착용하는 등 구체적으로 행동하세요.

## 09. 환대와 사랑의 물결을 일으킬 동료들 만드세요

교회가 더는 차별과 혐오의 방파제를 세우지 않도록 환대와 사랑의 물결을 만드세요. 차별과 혐오를 멈추지 않는 교회에 맞서 기독교인이자 시민으로서 나서야 할 때, 비슷한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함께 행동할 동료들을 만드세요.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는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 10. 절망에 지지 말고 희망을 일으키세요

차별 없는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핵심입니다. 좌절하거나 냉소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이 존엄하게 살아가는 세상은 쉽게 오지는 않지만, 반드시 옵니다. 함께 꿈꾸며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합시다.

## 더 깊은 대화를 위한 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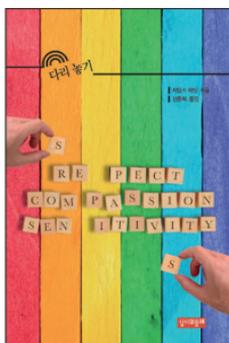
- 1 살면서 '차별' 혹은 '배제'를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 경험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그것을 다른 이의 경험과 어떻게 연결해 볼 수 있을까요?
- 2 나의 신앙적 신념과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평등한 권리가 상충된다고 생각하나요? 나의 신앙적 신념이 타인의 권리, 사회의 제도와 충돌한다면 어떻게 건강하게 분리할 수 있을까요?
- 3 신앙 안에서 성소수자를 사회적으로 포용하고 인정할 수 있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요?
- 4 지금까지 내가 들어온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에 관한 이야기 중, 구체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하거나 다시 생각해보고 싶은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 이야기를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5 서로 생각이 달라도 존중하며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안전한 감각을 만들기 위해 무엇을 시도할 수 있을까요?

6 이 안내서를 읽고 차별금지법에 대해 내가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나, 내 관점이 변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깨달음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 길을 잃지 않기 위한 책과 자료

평등세상을 향하는 길에서 우리는 함께 배우고 성장할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여기 소개하는 책과 자료들은 평등세상을 바라는 기독교인들에게 친절한 길잡이가 되어 줄 것입니다. 함께 읽고 묵상하며, 평등세상을 향한 걸음을 조금 더 단단히 내딛기를 권합니다.



### 다리 놓기

교회와 성소수자 공동체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기 위하여

제임스 마틴 지음·심종혁 옮김·성서와함께 펴냄(2021)

예수의 길은 멀리 있는 이들을 가까이 초대하는 길입니다. 미국 예수회원 제임스 마틴 신부는 성소수자와 그 가족, 친구들을 직접 만나며 들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서로에게 다리가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 성서, 퀴어를 옹호하다

말씀을 사랑하는 기독교인에게 더 넓은 시선을 열어 주는 길잡이

박경미 지음·한티재 펴냄(2020)

성경은 누군가를 배제하는 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현대와 해방의 언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동성애를 둘러싼 성경 해석을 새롭게 조명하며, 평등의 빛을 성경 속에서 찾아내는 길을 보여줍니다.



## 퀴어 아포칼립스

신앙이 배제의 장벽이 아니라 희망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이들에게

시우 지음·현실문화 펴냄(2018)

오늘의 한국 교회는 성소수자를 둘러싼 논쟁을 피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서 있습니다. 이 책은 반퀴어 운동의 역사와 그 안의 모순을 드러내며, 신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성찰하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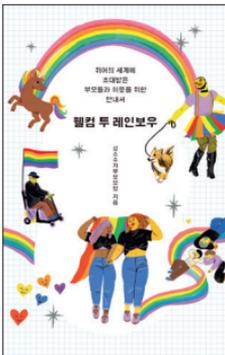


## 차별 없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성소수자를 환대하는 교회를 꿈꾸는 이들에게

성소수자목회연구모임 지음·도서출판 기사연 펴냄(2022)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모두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개신교 성소수자목회연구모임이 직접 펴낸 이 지침서는 성소수자를 환대하는 교회가 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길을 제시합니다. 교회는 어떻게 평등과 환대의 공간이 될 수 있을까요?



## 웰컴 투 레인보우

성소수자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위해

성소수자부모모임 지음·한티재 펴냄(2023)

성소수자와 함께 살아가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읽어볼 수 있는 친절함 교양서입니다. 막연한 거리감을 넘어 성소수자의 삶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기초적인 안내를 담고 있습니다. 무지에서 한 대로, 함께 걷기 위한 첫걸음을 용기 있게 내딛도록 도와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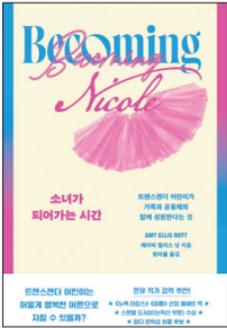


## 커밍아웃 스토리

생생한 목소리와 경험을 듣고 싶은 당신에게

성소수자부모모임 지음·한티재 펴냄(2018)

성소수자 자녀를 둔 가족들이 직접 들려주는 솔직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성소수자 당사자와 가족들이 커밍아웃 여정에서 겪은 두려움과 기쁨, 아픔과 화해의 과정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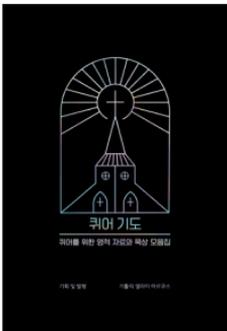


## 소녀가 되어가는 시간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응원

에이미 엘리스 넷 지음·현아울 옮김·돌고래 펴냄(2024)

트랜스젠더 여성 니콜의 성장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기록을 넘어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만들어 낸 희망의 서사입니다. 지지와 사랑 속에서 피어나는 변화의 과정은 우리에게 서로를 어떻게 지지해야 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 퀴어 기도

기도와 묵상 속에서 함께 견고 싶은 이들에게

가톨릭 앨라이 아르쿠스 지음(2025)

성소수자 기독교인을 위한 31개의 영적 자료와 31편의 묵상글이 담겨 있습니다. 신앙의 언어로 차별과 배제를 넘어서는 평등을 고백하고, 희망의 기도를 함께 드리도록 이끌어 주는 자료입니다. 기도와 묵상 가운데 함께 견고 싶은 분들께 추천합니다.



## 차별금지법, 평등의 약속

차별 없는 사회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지음(2021)

차별금지법은 단순한 제도가 아니라 모두가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의 약속입니다. 이 안내서는 차별금지법에 관한 어려오해를 풀고, 법이 지향하는 평등의 의미를 바로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 성소수자의 동료가 될 당신에게

한 걸음 더 나아갈 우리 모두를 위해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지음(2023)

직장에서, 일상에서 성소수자의 동료가 되려는 모두에게 필요한 실천적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추천 책과 영화, 단체에 관한 풍부한 정보까지 더해져 우리의 걸음을 구체적으로 이끌어 줍니다.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싶다면 꼭 참고하세요!



## 성소수자 지지자를 위한 동료 시민 안내서

앨라이가 되고 싶은 당신께

지니 게인스버그 지음·허원 옮김·현암사 펴냄(2022)

성소수자와 함께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읽어보세요! 성소수자에 관한 기본 용어부터 대화의 기술까지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 동료를 만날 수 있는 신앙 공동체

### 가톨릭 앨라이 아르쿠스

귀어와 신앙의 간극을 좁히고, 한국 가톨릭교회 내외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2022년에 설립된 무지개빛 신앙 공동체입니다. 매월 가톨릭 성소수자와 앨라이가 함께하는 미사를 봉헌하고 귀어문화축제에 참가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은 ‘차별없는 식탁’을 일상에서 실현시키기 위한 첫 걸음입니다.”

**이메일** arcuskr@gmail.com

**홈페이지** linktr.ee/arcus\_kr

**SNS**  arcuskr

 arcus\_kr

 arcus\_kr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504-777637  
가톨릭 앨라이 아르쿠스

### 기독교여민회

기독교여민회는 교회개혁과 사회개혁을 위해 일하려는 뜻을 가진 여성들이 모인 초교파 단체로서 1986년에 창립했습니다. 예수를 따라 민중과 더불어 살기 원하는 기독교여성들의 연대체로서, 교회와 사회에서 억압 받는 존재들의 해방을 위해 일합니다.

“차별금지법은 모든 존재를 향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이메일** kwm8674@hanmail.net

**홈페이지** kwm1986.org

**SNS**  kwm8674

**후원 계좌** 국민은행  
347-01-0019-594  
기독교여민회

---

## 길찾는교회

길찾는교회는 '교회 안의 교회', '새로운 교회 운동', '징검다리 교회'입니다. 성공회 뿐 아니라 다른 교파 기독교인들 안에 있는 다양한 경계인(境界人)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사회적 소수자와 동행하며 특히 미등록 이주민, 성소수자와 동행합니다.

**“차별금지법은 사회적 안전망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메일** pilgrimage.worship@gmail.com  
**홈페이지** linktr.ee/pilgrim.on.the.way  
**SNS** f pilgrim.on.the.way  
@ pilgrimage.church  
\_pilgrimage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001-721761  
용산나눔교회

---

## 로템나무그늘교회

로템나무그늘교회는 한국 최초 성소수자 교회로, 1996년 창립되어 2026년 30주년을 맞습니다. 로템나무 그늘처럼 쉼과 크리스트들이 쉼과 희망을 누리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경계를 녹이는 우리가 됩시다.”**

**이메일** rothemchurch.lgbtq@gmail.com  
**홈페이지** rothemchurch.org  
**후원 계좌** 국민은행  
76230104340090  
로템나무그늘

---

## 무지개센터

2022년 4월에 창립한 무지개센터는 가장 총회에서 임명받은 소수자 부문 사회 선교사가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성소수자와 장애인 이슈에 중점을 두어, 소수자 관련 인식 형성을 위한 독서모임과 기독교 내의 혐오 피해자들과 연대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연대하고 모두 힘받읍시다!”**

**이메일** rainbowcenter2024@gmail.com  
**SNS** f rainbowcenter2021  
@ rainbowcenter2021  
**후원 계좌** 국민은행  
229101-04-323884  
사회적 소수자 선교센터 무지개센터

---

## 무지개신학교

무지개신학교는 한국 교계의 차별과 혐오에 맞서, 다양한 존재들과 연대하는 학습공동체입니다. 퀴어·페미니즘·장애·생태 네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신학교에서 납작하게 다루는 영역을 맥락으로 공부하며 더 너른 연대와 사랑을 전하고자 합니다.

**“차별금지법으로 금기와 쫓겨남 없는, 자유롭게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갑시다.”**

**이메일** rainbowtheology@gmail.com  
**홈페이지** litt.ly/rainbowtheology  
**SNS**  Rainbow.Theological.Institute  
 inbow\_theology  
 ra1nbowtheology  
**후원 계좌** 신한은행  
140-013-635880  
무지개신학교

---

## 무지개예수

무지개예수는 성소수자 및 앨라이 그리스도인 모임으로, 성소수자 인권이 교계 안팎의 다양한 영역에서 존중받을 수 있도록 연대합니다. 소속 단위들은 매월 퀴어 친화적인 예배와, 매년 상반기 혐오와 차별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기도회를 준비합니다.

**“함께 울고 웃고 떠들썩하게 춤추며 즐거움을 나누는 이곳에 혐오 없는 평등세상 속히 오라!”**

**이메일** rainbowyesu@gmail.com  
**홈페이지** rainbowyesu.org  
**후원 계좌**  rainbowyesu  
기업은행  
061-098071-01-018  
오스하

---

## 새맘교회

새맘교회는 평신도가 중심이 되는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회,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교회, 연약한 이들과 위로와 우정을 주고받는 안전하고 신명나는 교회를 꿈꿉니다. 2010년에 교회가 시작되었고, 현재 종로 낙원사가 5층 강당을 빌려 예배합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랑을 연습하며 조금씩 나아가겠습니다.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위해!”**

**홈페이지** cafe.daum.net/semam2010  
**후원 계좌** 국민은행  
472501-04-069256  
새맘교회

---

## 성공회 [ \_\_\_\_ ]나눔의집

성공회 [ \_\_\_\_ ]나눔의집은 미등록 이주민, 귀어 갈벗들과 동행하는 사회적소수자생활인권센터입니다. 종교-주민/시민이 소수자 혐오로 미끄러지는 현 지형의 변화를 모색하고, 변화에 기여할 종교적-사회적 '이중 언어' 사용자들을 적극 발굴·확산하고자 합니다.

**이메일** ysnanum@gmail.com  
**홈페이지** ysnanum.or.kr  
**SNS**  ysnanum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001-721747  
용산나눔의집

**“차별금지법은 좀 더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한 하나의 발판입니다. 지금 당장 제정하라!”**

---

## 여름교회

여름 교회는 세상의 따뜻한 틈이 되길 꿈꾸며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를 실천해 나가며 모든 차별과 혐오에 맞서 안전한 예배 공간을 지어갑니다.

**홈페이지** yeoreumchurch.com  
**SNS**  yeoreumchurch  
**후원 계좌** 카카오뱅크  
3333-2385-91073  
유\*

**“지금 당장 제발”**

---

## 영광제일교회

영광제일교회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이며 성소수자 축복기도로 출교당한 이동환 목사가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다양한 몸과 정체성이 어우러져 아름답고 평등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이메일** gloryfirstchurch2013@gmail.com  
**SNS**  '영광제일감리교회' 검색  
 gloryfirstchurch  
**후원 계좌** 신한은행  
100-032-676110  
기독교대한감리회 영광제일교회

**“차별금지법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차별금지법!!”**

---

##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는 2010년 예수회 한국관구가 설립한 기관으로, 가톨릭 사회교리를 바탕으로 인권과 평등을 모색합니다. 세미나·강좌와 웹진 발간을 통해 교육과 담론 확산에 힘쓰며, 연구와 현장을 잇는 다리를 지향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확대와 평등으로  
신앙을 오늘의 현실 속에서 함께 살아내는  
길로 나아가요!”**

**이메일** jesuitadvocacy  
@sogang.ac.kr  
**홈페이지** advocacy.jesuit.kr  
**SNS**  advocacy.jesuit  
 jesuitadvocacy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5-901-625900  
(재)한국예수회

---

## 옥합교회

호남 지역 성소수자부모모임이 열리는 옥합교회는 조건 없는 연대와 차별 없는 확대를 실천하는 퀴어 친화적 공동체입니다. 광주지역 문화축제와 지역 인권단체들과 연대하며, 모두가 있는 그대로 존중받고 성장하는 안전한 신앙 공동체를 꿈꿉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며,  
나란히 서서 함께 가겠습니다.”**

**이메일** naturalcity  
@empas.com  
**SNS**  eomgibong.604486  
 okhap\_church  
**후원 계좌** 농협  
301-0284-2800-01  
대한예수교장로회옥합교회

---

## ‘우리 곁의 초록나무’ 임보라목사기념사업회

‘아름이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임보라 목사의 삶을 기억하고, 성평등·노동·평화·생태 등의 활동을 이어가며, 차별과 낙인, 부정의로 인해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는 이들의 곁에서 변화를 만들어 가고자 설립됐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은 더이상 버랑 끝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일상까지 바뀌도록  
일구는 여정의 첫걸음”**

**이메일** greentreeborah  
@gmail.com  
**홈페이지** linktr.ee/remember\_greentree  
**SNS**  ‘임보라목사기념사업회’ 검색  
 rememberborah  
**후원 계좌** 국민은행  
035801-04-219506  
섬돌향린교회

---

##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평등세상은 반차별 평등 지향의 그리스도인 네트워크입니다. 다양한 기독교 교파(천주교, 성공회, 개신교)가 함께 모여 현안에 대응하고, 반차별 평등 지향의 문화를 만들기 위한 강의, 행사, 예배를 기획하고 진행합니다.

**이메일** cwdh2021@gmail.com  
**SNS**  christianequalityact  
**후원 계좌** 카카오뱅크  
3333-20-1013708  
〇스\*

---

## 차별을 넘어서는 감리회모임(차별너머)

이동한 목사가 감리회에서 출교된 이후 이를 지원하고 연대하기 위한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교리와 장정 3조 8항 폐지 입법 운동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연대하며, 감리교 목회자 재판 지원을 합니다.

**홈페이지** overdiscrimination2022@gmail.com  
**SNS**  mmahd0306  
**후원 계좌** 우리은행  
1002043436018  
남기평

**“차별금지법은 보다 안전한 공간을 바라는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

## 천안살림교회

천안살림교회는 안전한 신앙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들 모두가 존중받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출신·성별·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없이 이웃을 환대하고 평등·정의·평화를 위해 연대합니다.

**홈페이지** salrim.net  
**후원 계좌** 국민은행  
011237-04-005841  
천안살림교회

**“신앙은 혐오가 아닌 환대로 드러납니다.  
차별금지법은 환대를 위한 공격 약속의 시작입니다.”**

---

## 청어람ARMC

청어람은 2005년에 창립한 기독교 시민 교양 플랫폼으로서 한국 개신교 생태계를 이롭게 하는 운동입니다. 교회 안에서 다양한 결을 만들고자 고민하는 그리스도인, 제도 바깥에서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그리스도인을 위한 다양한 제안을 하는 한편, 대변환의 시대 속에서 위기에 직면한 신앙의 길을 고민하고, 다음 세대를 위한 새로운 신앙을 발견하도록 돕습니다.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존중하는 신앙을 이어갑시다!”**

**이메일** iam@ichungeoram.com  
**홈페이지** ichungeoram.com  
**SNS**  ichungeoram  
 ichungeoram  
 ichungeoram  
**후원 계좌** 국민은행  
093437-04-004264  
(재)한빛누리(청어람)

---

## 한국교회를 향한 귀어한 질문 큐앤에이

큐앤에이는 한국 기독교 안에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상담, 찬양예배, 동아리 활동 등 귀어 크리스천을 지원하고, 앨라이 교육, 차별법 재개정 운동, 귀어 친화적 예식서 작성 등 교회를 귀어 친화적으로 변혁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인권 진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메일** qnaoffice2021@gmail.com  
**홈페이지** qnaforchurch.creatorlink.net  
**SNS**  qnaforchurch  
 qnaforchurch  
 qnaforchurch  
**후원 계좌** 신한은행  
100-035-182490  
큐앤에이

---

##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교회인권센터는 성서에 입각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평등세상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되는  
평등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차별금지법은 제정되어야 합니다.”**

**이메일** ncckhr@gmail.com  
**홈페이지** ncckhumanrights.creatorlink.net  
**SNS**  ncckhumanrights  
**후원 계좌** 신한은행  
140-015-408389  
한국교회인권센터

---

## 한국기독교장로회 ‘현대와온전한포용’

현대와온전한포용은 임보라 목사의 죽음을 애도하면서 2023년 4월 창립하였습니다. 성소수자들이 자기 정체성을 긍정하며 교회에서 안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신앙공동체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목회하며, 공공회 차원에서 대화의 장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메일** hyejinf82@hanmail.net  
**후원 계좌** 우체국  
110-0104-13581  
이혜숙

“모든 차별과 혐오를 반대하며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일에 우리 함께 합시다.”

---

## 한국예수교회연대

한국예수교회연대는 22년 창립총회로 시작해 생명존중·평등·정의·평화·포용·민주·반가부장·약자연대·생태주의를 지향하며, 책모임·세미나·출판·유튜브와 연대활동을 통해 모두를 위한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메일** 2022kycs@naver.com  
**홈페이지** kycs.oopy.io  
**SNS**  ‘한국예수교회연대’ 검색  
 koreanyesu  
**후원 계좌** 국민은행  
012501-04-327242  
한국예수교회연대

“차별금지법은  
모두가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첫 걸음입니다.”

---

## 한국퀴어신학아카데미

인간과 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경계를 허무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가르침을 바탕으로, 다양성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이성애 중심주의를 넘어선 신앙과 새로운 신학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모색하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홈페이지** koreaqueertheology@gmail.com  
**SNS**  QueerTheology  
**후원 계좌** 카카오뱅크  
3333-17-0381239  
○○○

“문자주의, 이성애 중심주의를 벗어나  
퀴어한 관점의 신학을 공부해보고픈 분들 환영합니다.”

---

## 환대와 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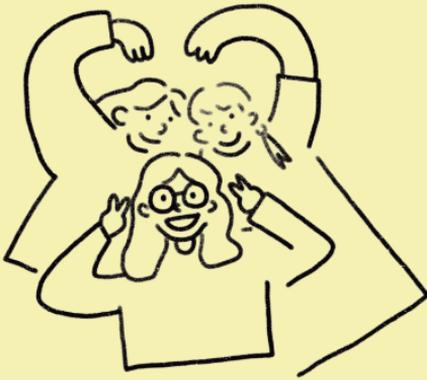
2023년 7월 예장통합교단 출신 또는 소속 목회자 20여 명이 모여, 성소수자를 정죄하는 교단 헌법 폐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목회자와 시민을 대상으로 전국 순회강연을 진행했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가고 있습니다.

**이메일** ijhabba@daum.net  
**후원 계좌** 카카오뱅크  
3333-16-6520370  
김영준

**“차별금지법은 약자, 소수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법입니다.”**

---





---

일부 성당에서 차별금지법과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려 노력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는 냉담자지만 조금씩 변화의 흐름이 보일 때 왠지 흐뭇해지기도 해요.

50대 여성 그리스도인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 손주환

느헤미야 교회협의회

이 작은 글들이 한 사람의 마음과 한 교회의 시선을 바꾸어, 우리가 꿈꾸는 평등세상을 향한 물결이 되기를, 교회가 사랑과 평등의 짐이 아니라, 함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기를, 그 빛이 서로를 환대하는 길 위에서 세상의 희망으로 자라나기를!

### 오세찬

성공회 [ \_\_\_\_ ] 나눔의집

그리스도의 몸으로 모인 교회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할 차별금지법. 예수의 삶은 차별 없는 길을 열었고, 그 길을 함께 한 이들이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지난 겨울 엄혹한 추위에도 서로의 길을 지킨 이들이 광장을 열어냈듯이, 차별 없고 평등한 세상 열어내는 길에 그리스도인들도 이제는 적극 동참합니다.

## 오수경

성소수자 현대 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교회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배운 저는 교회 바깥에서 주님의 사랑이 어디로 향하는지 배웠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과 존재를 부정당하거나 차별받는 이들 곁에 주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랑에 기꺼이 ‘아멘’으로 응답합니다.

## 이동환

한국교회를 향한 귀여한 질문 큐엔에이

진짜 그리스도교의 모습을 되찾고 싶습니다. 누군가를 편견 없이 대하고, 차별의 구조를 바꾸어 나가는 일은 누구보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앞장서 해나가야 할 일이 아닐까 생각해요. 모든 존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누군가에게 그 실마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마지않습니다.

## 정경일

###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오늘 예수님은 소수자의 얼굴로 우리를 찾아 오시며, 차별받고 혐오당하는 소수자를 환대하고 사랑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 사회 활동가들이 그리스도인보다 더 그리스도인 같아, 부끄럽고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 정다빈

### 예수회 인권연대연구센터

작은 목소리들이 스러지지 않고 깊이 올려오는 자리.  
다름이 배척의 이유가 되지 않는 시간.  
서로를 돌보며 함께 걸어 올리는 희망.  
그렇게 더불어 만들어갈 평등세상을 향해.

## 자캐오

성공회 [ \_\_\_\_ ] 나눔의집, 길찾는교회

‘외로우면 지는 거다.’ 임보라 목사님과 자주 확인하는 말이  
었죠.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외롭지 않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차별금지법 또한 우리가 무한경쟁과 각자도생의 세계와 관계  
가운데, 고립되어 파편화되지 않도록 하는 ‘전환점’이 될 겁니  
다. 우리를 잇고 엮는 상호 존중과 돌봄으로 안내할 겁니다.

### 수수

#### 한국성폭력상담소

혼란스러움이나 막연함, 불안과 공포는 무언가를 잘 모를 때 생기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차별금지법을 둘러싼 부정적인 감정도 그런 것 아닐까요? 이 안내서를 통해 차별이 무엇이고 평등은 무엇인지 함께 대화 나누며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열리길 희망합니다.

### 몽

#### 인권운동사랑방

“징검다리를 잇기 위해 필요한 돌을 계속 놓아갈 것입니다.” 기독교와 차별금지법 사이에서 스스로 징검다리가 되었던 임보라 목사님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이기에 차별금지법 제정에 함께 하는 이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있는 나라’에서 웃을 수 있을 때까지, 투쟁입니다!

## 박한희

### 무지개행동

사랑, 연대, 환대. 평등을 위한 투쟁의 여정에서 만나는 기독교의 정신은 차별금지법과 분명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이상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혐오를 선동하는 기독교가 아닌, 함께 평등한 세상을 만드는 더 많은 기독교인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 장예정

### 천주교인권위원회

안식년을 맞아 긴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여행지 어느 곳에서 왜 한국에 아직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안되고 있는지 질문을 들었습니다. 기독교의 영향력이 너무나 크고 거기에 가로막혀 있다고 답하니 상대방은 바로 납득을 하였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모두가 함께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으로 가는 길, 기독교도 “모두”에서 빠지지 않는 세상을 바랍니다.



---

주님, 이 우주가 고유한 개별 존재들이 서로 어울려  
서로에게서 하느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다양성의 축제의 장이 되게 하소서.  
편을 가르고, 흑백으로 나누며, 우와 열을 만드는 그런 세상이 아닌  
찬란한 하느님의 수천만 색의 빛깔을 맘껏 나누는 세상을 그립니다.  
이 세상이 다양성에 환호하고 경탄하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조진선 소피아 수녀 <귀어 기도>

[부록]

## 환대를 위한 기도와 전례

### 성소수자들의 삶이 아름다움과 자부심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알록달록 다양한 빛깔로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 이상하고 별나지만 가치 있고 아름다운 모든 존재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솔직히 드러내며 더 진실하게 살아가려는 성소수자들의 용기에 감사합니다. 누군가는 숨어야만 했고, 누군가는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소서. 성소수자들의 삶을 부끄러움이 아니라 자긍심과 기쁨으로 채워주소서. 이 세상이 조금 더 안전하고 따뜻하기를, 사랑이 있는 그대로 사랑이 되며 축복이 있는 그대로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더 많이 듣고, 더 넓게 껴안고, 더 다채롭게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출처 : 청어람 '세속성자 주일예배' 기도문 중

## [ 서로서로 돌보는 세상이 되게 하소서 ]

우주를 창조하시고 바라보시며  
‘좋다!’고 하신 하느님,  
주님께서 보시기에 어느 하나 아름답지 않은 것이 없고  
흡족하지 않은 것이 없으시기에  
그렇게도 좋아하시는 피조물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가 자신의 존엄을 깊이 인식하고  
그 깨달음으로 다른 존재의 존엄을 사랑으로 바라보며  
있는 그대로의 서로를 존중하는 세상이 되게 하소서.  
너무도 다른, 그래서 너무도 고유한 개별 존재들이  
서로 안에 담긴 영적 보화를 찾아가는  
신비로운 소풍의 여정에서  
‘다름’으로 신비롭고 그래서 아름다운 서로의 빛에 경탄하고  
예측할 수 없는, 상상할 수도 없는 하느님의 계획과,  
하느님의 창조력에 찬탄하게 하소서.

일찍이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 보여 주신  
메시아와 함께하는 ‘평화의 왕국’의 그림처럼  
이 지상에 사는 어떤 존재도 어떤 조건으로도 위협받지도,  
차별받거나 배제되지 않는 세상이 되어  
서로서로 돌보며 서로의 존재 자체로  
감사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소서.

주님, 이 우주가 고유한 개별 존재들이 서로 어울려  
서로에게서 하느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서로에게 생명을 주는 다양성의 축제의 장이 되게 하소서.

편을 가르고, 흑백으로 나누며, 우와 열을 만드는 그런 세상이 아닌  
찬란한 하느님의 수천만 색의 빛깔을 맘껏 나누는 세상을 그립니다.  
이 세상이 다양성에 환호하고 경탄하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이 우주가 아무도 울지 않는 세상이 되도록 움직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소서. 아멘.

출처: 가톨릭 앨라이 아르쿠스 <귀어 기도>

작성: 조진선 소피아 수녀(성가소비녀회)

## [ 아이다호데이 기도문 ]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사랑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말합니다  
남자답게, 여자답게, 똑바로 살아야 한다고.  
너무나 시끄럽게 말합니다.

오직 이성애만이 옳으며,  
몸과 마음이 다르면 고쳐야 한다고.

그 거짓말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교만이 존재를 가두었습니다.  
그 혐오가 성소수자의 숨을 끊고,  
몸을 찌르고, 이름을 지우고, 눈물이 마르지 않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나 아닌 다른 내가 되어야 한다는 명령은  
당신께로부터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정체, 이 몸, 이 사랑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비정상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감추어질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춤출 진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염되었다고 말해진 몸의 벗,  
더럽고 너털너털한 이들의 친구이며  
감염인의 식탁에 먼저 앉으시는 분,  
이방인과 불법에 처한 자들을 마주 바라보시는 분  
감추어진 자들을 찾아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열어 보이셨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숨지 않아도 되는 교회,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예배,  
거룩이 빛나는 해방의 날들을  
우리의 시간 속에 이루어 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의 두려움과 무지를 걷어내 주시고,

편견과 혐오가 자라지 못하도록 지혜를 주시며,  
끝나지 않을 것만 같은 폭력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소서.

간절한 마음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처: 평화교회연구소 | 작성: 노랑조아

##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 기도문

### 아름다운 하나님!

당신께서는 누구보다도 ‘아름다움’의 가치를 아는 분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짓고 흠족해하셨죠. 투박한 이분법이 아닌, 섬세한 스펙트럼으로 이루어진 세상은 무지개 색깔로 빛이 납니다. 트랜스 젠더 퀴어들은, 성별 이분법이 틀렸음을 존재 자체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스펙트럼 그 자체인 트랜스 젠더 퀴어들을, 주님께서 ‘보기에 아름답다’고 하십니다.

### 유연한 하나님!

당신께서는 삼위와 일체로, 셋이면서 동시에 하나인 모습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의 성별은 하나로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함께 믿는 성도들에게도 유연한 상상력을 주셔서, 우리가 서로를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일상 속에서 맞닥뜨리는 어려움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주세요.

## 모험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그 어떤 모험이라도 감수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두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앞뒤 재지 않고 뛰어드는 당신의 모습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온 존재가 뒤흔들리는 경험을 합니다. 젠더와 젠더 사이를 자유롭게 유연하게 모험하는 트랜스 젠더 퀴어들은, 주님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용감한 우리들이, 이 땅에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임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롬 8:38-39).”

태어날 때부터 트랜스젠더였고, 지금도 트랜스의 몸으로 우리와 함께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처: 한국교회를 향한 퀴어한 질문 큐앤에이 | 작성: 샬롬

### 다양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무지개예수 축복식

† 표시는 인도자가, ○ 표시는 참여한 모든 목회자들이 함께, ◎ 표시는 모든 참여자가 함께 합니다.

하나님/하느님은 각자 신앙 전통에 따라 호칭합니다.

- † 하늘과 땅, 이 세계의 모든 존재에 깃들여 계신 우리들의 하나님/하느님.
- ◎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축복이 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 우리는 당신과 나, 우리 모두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우리들의 하나님/하느님을 사랑합니다.
- ◎ 나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하느님을 만나고, 당신은 나를 통해 하나님/하느님의 속삭임을 듣습니다.
- 이렇게 우리는 서로에게 축복이자 선물이 됩니다.
- † 당신과 나,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저절로 바뀌지 않습니다.
- ◎ 지금 이 순간 여기에 모인 당신과 나, 우리들의 마음과 삶이 이어져 연대할 때에 변화를 이룹니다.
-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동등하며 독특합니다.

- ◎ 당신과 나는 똑같은 무게로 존중받아야 하며, 나와 당신은 서로의 독특함을 존중해야 합니다.
- † 우리는 이 땅의 모든 성소수자들과 사회적 소수자들을 향한,
- ◎ 낙인과 혐오, 차별과 배제에 반대합니다.
- 우리는 서로를 향한 믿음과 자비, 그리고 소망과 사랑만이 이 세계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 † 우리는 혐오가 아닌 사랑, 차별이 아닌 자비, 배제가 아닌 가능성과 희망이 가득한 세계를 꿈꿉니다.
- ◎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이제 서로의 기도가 되어 용기를 가지고 꿈꾸는 세상을 향한 행진을 시작합니다.
- 지금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지금 모습 그대로 소중합니다.
- ◎ 우리가 발견할 또 다른 나를 사랑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축복이 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 † 이제 우리, 이 위로와 연대의 자리에 함께한 서로를 축복합니다.
- ◎ 지금 모습 그대로 괜찮습니다. 나는 당신의 눈물과 기쁨, 일상과 특별한 순간을 축복합니다.
- 그 모든 게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 ◎ 당신에게는 내가 있고, 나에게는 당신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있습니다.
- † 하나님/하느님께서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 이 땅의 다양한 성소수자와 함께 하십니다.
- ⊙ 그 누가 뭐라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 † 하나님/하느님께서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축복하시는 성소수자,
- ⊙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과 춤추며 웃고 떠드시는 우리들의 하나님/하느님.
- † 우리가 모여 함께 울고 웃고 떠들썩하게 춤추며 즐거움을 나누는 이 자리를,

(여기서부터 한 구절씩 큰 소리로 외치며, 성수와 꽃잎을 뿌려 축복합니다.)

- † 약함으로 강함을 이기는 창조주와, 참사랑인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의 호홉인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 ⊙ 이 자리와 이곳에 모인 모든 이들의 삶에 사랑과 은총이 넘쳐나게 하소서. 아멘.

출처 : 무지개예수 2017년 서울퀴어문화축제 축복식 예문



## 차별금지법이 궁금한 당신에게

기독교인을 위한 차별금지법 안내서

발행일	2025년 11월
발행처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디자인	이림
일러스트	김유미

###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이메일 [cwdh2021@gmail.com](mailto:cwdh2021@gmail.com)

SNS  [christianequalityact](#)

후원 계좌 : 카카오뱅크 3333-20-1013708 〇스츠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이메일 [equalact2017@gmail.com](mailto:equalact2017@gmail.com)

홈페이지 [equalityact.kr](http://equalityact.kr)

SNS  [equalact2017](#)  [equalityact\\_allpeople](#)  [equalact](#)

후원 계좌 : 우리은행 1006-201-50761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Q.

#차별금지법있는나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차별과 혐오 없는 평등세상을 바라는  
그리스도인 네트워크

비매품 / 유료

03230



9 791198 802347



ISBN 979-11-988023-4-7

